

目次

東洋古典譯註叢書を 발간하면서

凡例

參考書目

目次

卷9 表・啓

01. 謝知制誥表 知制誥를 맡게 된 데 謝恩하는 表 / 15
02. 滁州謝上表 知滁州에 제수되어 謝恩하여 올리는 表 / 18
03. 揚州謝上表 知揚州에 제수되어 謝恩하여 올리는 表 / 21
04. 謝宣召入翰林表 召命을 내려 翰林에 들어가게 한 데 謝恩하는 表 / 24
05. 再辭侍讀學士表 侍讀學士를 재차 사양하는 表 / 26
06. 進新脩唐書表 새로 撰修한 《唐書》를 올리는 表 / 28
07. 辭樞密副使表 樞密副使를 사양하는 表 / 31
08. 賀平貝州表 貝州를 평정한 일을 慶賀하는 表 / 34
09. 乞罷政事第三表 政事を 그만두게 해주기를 청하는 세 번째 表 / 35
10. 亳州乞致仕第二表 亳州에서 致仕를 청한 두 번째 表 / 38
11. 蔡州乞致仕第二表 蔡州에서 致仕를 청한 두 번째 表 / 42
12. 蔡州乞致仕第三表 蔡州에서 致仕를 청한 세 번째 表 / 45
13. 謝明堂覃恩轉官表 明堂에서 聖恩을 널리 내리면서 벼슬을 옮겨준 데 사례하는 表 / 47
14. 謝復龍圖閣直學士表 龍圖閣直學士에 복직된 데 사은하는 表 / 50
15. 南京留守謝上表 南京留守로 있으면서 사은하는 表 / 51

16. 亳州謝上表 亳州에서 사은하는 表 / 54
17. 謝賜漢書表 《漢書》를 하사한 데 사은하는 表 / 58
18. 謝擅止散青苗錢放罪表 青苗錢 지급을 임의로 중지한 죄를 용서해준 데 사은하는 表 / 59
19. 謝襄州燕龍圖肅惠詩啓 襄州에서 龍圖 燕肅이 시를 준 데 사례하는 啓 / 62
20. 謝石秀才啓 石秀才에게 사례하는 啓 / 66
21. 謝校勘啓 校勘을 맡은 데 사례하는 啓 / 72
22. 謝進士及第啓 進士試에 급제한 데 사례하는 啓 / 79

卷10 書

01. 上范司諫書 范司諫에게 올린 편지 / 94
02. 與高司諫書 高司諫에게 보낸 편지 / 100
03. 論河北財産上時相書 河北의 재산을 논하여 당시 宰相에게 올리는 편지 / 109
04. 投時相書 당시 宰相에게 보낸 편지 / 116
05. 上杜中丞書 杜中丞께 올리는 편지 / 121
06. 與刁景純學士書 刁景純 學士에게 보낸 편지 / 126
07. 與蔡君謨求書集古錄序書 蔡君謨에게 보내 《集古錄》 서문의 글씨를 써주길 청한 편지 / 131
08. 與陳員外書 陳員外에게 보낸 편지 / 133
09. 與黃校書論文章書 黃校書에게 보내 문장을 논한 편지 / 136
10. 與謝景山書 謝景山에게 보낸 편지 / 138
11. 與曾鞏論氏族書 曾鞏에게 보내 氏族에 대해 논한 편지 / 141
12. 與郭秀才書 郭秀才에게 보낸 편지 / 144

卷11 書

01. 與石推官第一書 石推官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 148
02. 與石推官第二書 石推官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 153
03. 與張栻秀才第一書 張秀才 栻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 158

12 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2

- 04. 與張秀才第二書 張秀才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 160
- 05. 與荊南樂秀才書 荊南의 樂秀才에게 보낸 편지 / 168
- 06. 答陝西安撫使范龍圖辭辟命書 陝西安撫使 范龍圖에게 답하여 徵召를 사양한 편지 / 173
- 07. 答祖擇之書 祖擇之에게 답한 편지 / 177
- 08. 答李大臨學士書 李大臨 學士에게 답한 편지 / 181
- 09. 答徐無黨第一書 徐無黨에게 답한 첫 번째 편지 / 183
- 10. 答宋咸書 宋咸에게 답한 편지 / 187
- 11. 答吳充秀才書 吳充 秀才에게 답한 편지 / 189
- 12. 代人上王樞密求先集序書 남을 대신하여 王樞密에게 올려 先人의 문집 서문을 부탁한 편지 / 193
- 13. 代楊推官泊上呂相公求見書 推官 楊泊를 대신하여 呂相公에게 올려 만나 뵙기를 청한 편지 / 199

卷12 論

- 01. 正統論上 正統에 대한 論 上 / 206
- 02. 正統論下 正統에 대한 論 下 / 211
- 03. 爲君難論上 임금 노릇 하기 어려움에 대한 論 上 / 227
- 04. 爲君難論下 임금 노릇 하기 어려움에 대한 論 下 / 233

卷13 論

- 01. 本論上 本에 대한 論 上 / 238
- 02. 本論中 本에 대한 論 中 / 250
- 03. 本論下 本에 대한 論 下 / 258
- 04. 原弊論 폐단을 究明한 論 / 266

卷14 論

- 01. 春秋論上 《春秋》에 대한 論 上 / 278

- 02. 春秋論中 《春秋》에 대한 論 中 / 282
- 03. 春秋論下 《春秋》에 대한 論 下 / 286
- 04. 春秋或問 《春秋》에 대한 或問 / 294
- 05. 泰誓論 〈泰誓〉에 대한 論 / 297
- 06. 朋黨論 朋黨에 대한 論 / 303
- 07. 縱囚論 죄수를 풀어준 일에 대한 論 / 308

卷15 史論

- 01. 唐書兵志論 《唐書》〈兵志〉에 대한 論 / 311
- 02. 唐書禮樂志論 《唐書》〈禮樂志〉에 대한 論 / 313
- 03. 唐書食貨志論 《唐書》〈食貨志〉에 대한 論 / 321
- 04. 唐書藝文志論 《唐書》〈藝文志〉에 대한 論 / 324
- 05. 唐書五行志論 《唐書》〈五行志〉에 대한 論 / 327
- 06. 五代史梁太祖論 《五代史》〈梁太祖紀〉에 대한 論 / 331
- 07. 五代史唐明宗論 《五代史》〈唐明宗紀〉에 대한 論 / 333
- 08. 五代史晉家人傳論 《五代史》〈晉家人傳〉에 대한 論 / 337
- 09. 五代史周世宗論 《五代史》〈周世宗紀〉에 대한 論 / 340

卷16 史論

- 01. 五代史職方考論 《五代史》〈職方考〉에 대한 論 / 345
- 02. 五代史司天考論 《五代史》〈司天考〉에 대한 論 / 353
- 03. 五代史前蜀王建世家論 《五代史》〈前蜀王建世家〉에 대한 論 / 357
- 04. 五代史周臣傳論 《五代史》〈周臣傳〉에 대한 論 / 362
- 05. 五代史唐六臣傳論一 《五代史》〈唐六臣傳〉에 대한 論 1 / 364
- 06. 五代史唐六臣傳論二 《五代史》〈唐六臣傳〉에 대한 論 2 / 367
- 07. 五代史馮道傳論 《五代史》〈馮道傳〉에 대한 論 / 371
- 08. 五代史王進傳論 《五代史》〈王進傳〉에 대한 論 / 375
- 09. 五代史一行傳論 《五代史》〈一行傳〉에 대한 論 / 378

14 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2

10. 五代史宦者傳論 《五代史》〈宦者傳〉에 대한 論 / 382

11. 五代史伶官傳論 《五代史》〈伶官傳〉에 대한 論 / 385

宋大家歐陽文忠公文抄 卷9

表* · 啓

* 황제에게 올리는 글을 表라 하는데 대개 陳請이나 감사, 賀禮의 목적으로 올리는 奏章의 일종이다. 《釋名》〈釋書契〉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表라 하니, 안에 생각한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下言上曰表 思之於內表施於外也]” 하였고, 漢 蔡邕의 《獨斷》에는 “무릇 신하가 천자에게 올리는 글이 네 가지이니, 첫째는 章이고 둘째는 奏이고 셋째는 表이고 넷째는 駁이다. 表는 첫머리에 ‘臣某言’이라 하고 말미에 ‘臣某誠惶誠恐 頓首頓首 死罪死罪’라 한다.” 하였다. 황후나 황태자, 왕이나 왕후에게 올리는 글은 箋이라 한다. 대개 四六駢儷體로 짓는다.

歐陽公之文이 多適逸可誦이나 而於表啓間에는 則往往以憂讒畏譏之餘로 發爲嗚咽涕洟之詞하되 怨而不誹하고 悲而不傷하니 尤覺有感動處라

歐陽公의 글은 대개 굳세고 飄逸하여 읽을 만하지만, 表 · 啓와 같은 글에서는 왕왕 참소를 근심하고 기롱을 두려워한 나머지를 발산하여 오열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슬픈 글을 지었다. 그렇지만 그 글이 원망하되 비방하지 않고 슬퍼하되 감상적이지 않으니, 감동되는 곳이 있음을 더욱 깨닫겠다.

01. 謝知制誥表* 知制誥를 맡게 된 데 謝恩하는 表

* 이 글은 宋 仁宗 慶曆 3년(1043)에 지어졌다. 이해 12월에 歐陽脩가 召命을 받고 知制誥에 임명되었다. 지제고는 官名인데, 宋나라 때 翰林學士들은 모두 지제고란 직함을 가지고 制, 誥, 詔, 令, 敕書, 德音 등 왕명을 작성하

였다.

臣某言하노이다 伏奉制命¹⁾에 蒙恩特授臣右正言²⁾知制誥者라 伏以王者尊居萬民之上하야 而誠意能與下通하고 奄有四海之大하야 而惠澤得以徧及者는 得非號令告詔發揮而已哉아 然其爲言也가 質而不文하면 則不足以行遠³⁾而昭聖謨요 麗而不典하면 則不足以示後而爲世法하니 居是職者는 古難其人이어늘 乃以愚臣而當此選이라

신 某는 아옵니다. 삼가 制命을 받음에 성은을 입어 신에게 특별히 右正言·知制誥에 제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앞드려 생각건대 王者가 만민의 위에 높이 앉아 있으면서도 誠意가 아랫사람들과 통하여 문득 四海의 큰 영토를 가지고 혜택이 두루 미칠 수 있는 것은 號令과 詔命으로 표현하여 전달하는 것일 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언어가 질박하기만 하고 꾸밈이 없으면 멀리 전달되어 임금의 계책을 밝힐 수 없으며, 아름답기만 하고 典雅하지 못하면 후세에 보여 세상의 법이 될 수 없으니, 이 직책을 맡는 자는 옛날에도 적임자를 얻기 어려웠거늘 어리석은 신을 이 자리에 선발하셨습니다.

- 1) 制命 : 황제의 명령을 이르는 말이다.
- 2) 右正言 : 宋 太宗 端拱 원년(988)에 左右補闕이란 관명을 左右司諫으로 바꾸고, 左右拾遺라는 관명을 左右正言으로 바꾸었다.
- 3) 質而不文 則不足以行遠 : 《春秋左氏傳》 哀公 25년에 “말을 꾸미지 않으면 행하더라도 멀리 가지 못한다.[言之不文 行而不遠]”라고 하였다.

伏惟皇帝陛下茂仁聖之姿하고 荷祖宗之業하야 日慎一日에 曾未少懈러니 而自羌夷¹⁾負固하야 邊鄙用師로 勤儉率先於聖躬하고 焦勞常見於玉色하야 雖有憂民之志나 而億姓未蘇하고 雖有欲治之心이나 而群臣未副라 故每進一善이면 則未嘗不欲勸天下之能하고 每官一賢이면 則未始不欲盡人材之用이라 雖以爵祿而砥礪라도 尙須訓誡之丁寧이어든 尤假能言以諭至意하니 可稱是者가 不大艱歟아

삼가 생각건대 황제 폐하께서는 仁聖한 자품을 많이 타고나셨고 祖宗의 유업을

어깨에 지고 계시는 터라, 날이 갈수록 삼가는 마음이 조금도 해이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羌夷가 險固한 지형을 믿고 변방에 군사를 보내 전쟁한 뒤부터 勤儉을 성상께서 몸소 솔신하시고 勞心焦思하는 기색이 늘 龍顏에 나타나, 백성을 근심하는 뜻이 있으셨으나 백성들은 소생하지 못하였고, 잘 다스리려는 마음이 있으셨으나 신하들이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에 매양 善한 한 사람을 등용하면 이로써 천하의 유능한 사람들을 권면하고자 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고, 어진 한 사람을 임용하면 이로써 인재들을 다 기용하고자 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단순한 爵祿을 주어서 면려할지라도 오히려 간곡한 訓戒를 내리셨는데, 더욱이 문장을 잘하는 사람을 빌어서 지극하신 뜻을 말씀하셨으니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자를 얻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습니까.

1) 羌夷 : 서쪽의 이민족인 羌族 등의 소수민족을 가리킨다.

伏念臣雖以儒術進身이나 本無辭藝可取요 徒值嚮者時文之弊하야 偶能獨守好古之勤하니 志欲去於雕華나 文反成於樸鄙라 本懼不適當世之用이어니 敢期自結聖主之知리오 陛下獎之特深하고 用之太過하니 此臣所以懇讓三四하야 至於辭窮이라

삼가 생각건대 신은 비록 儒學으로 벼슬길에 올랐으나 본래 취할 만한 문장과 재주는 없고, 한갓 예전에 유행하던 時文의 폐단을 만나 우연히 홀로 古文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지켰으니, 화려한 문장을 없애려는 뜻을 가졌으나 도리어 질박하고 비루한 글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래 當世의 쓰임에 맞지 않았음을 두려워했거늘 감히 스스로 聖主의 인정을 받기를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폐하께서 장려해주심이 특별히 깊고 臣을 써주심이 너무 과하였으니, 이것이 신이 서너 차례나 간절히 사양하여 말이 궁한 데까지 이르렀던 까닭입니다.

而天意不回하고 寵命難止라 尙慮頑然之未諭하야 更加使者以臨門이라 恩出非常에 理難屢瀆일새 及俯而受命하야 伏讀訓辭하니 則有必能復古之言이라 然後益知所責之重하야 夙夜惶惑하야 未知所措어든 伏¹⁾況文字之職은 廁于侍從之班하야 在于周

行²⁾하니 是爲超擢이라 不徒揮翰以爲效요 自當死節以報恩이니 惟所使之하야 期於 盡瘁로소이다

그러나 聖上의 뜻을 돌리지 않으시고 총애하시는 명을 그치기 어려워 오히려 頑鈍한 신이 알아듣지 못할까 염려하시어 다시 使者를 보내 신의 집에 이르게 하시니, 聖恩이 각별함에 도리상 누차 사직하여 성상을 번거롭게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몸을 숙여서 명을 받고서 삼가 綸音을 읽어보니, 만드시 古文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뒤에야 맡은 일이 중요함을 더욱 잘 알고서 밤낮으로 마음이 흔들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문장을 맡은 관직은 侍從의 반열에 들어 大臣의 위치에 있으니, 이는 품계를 뛰어넘어 발탁한 것입니다. 한갓 붓을 휘둘러 보답할 뿐 아니라 응당 목숨을 바쳐서 報恩해야 할 것이니, 오직 부리시는 대로 따라 기필코 身命을 다 바치겠습니다.

- 1) 伏：四庫全書本 《唐宋八大家文抄》에는 ‘又’자로 되어 있는데, 文理로 보아 ‘伏’자보다는 ‘又’자가 맞다고 생각된다.
- 2) 周行：《詩經》〈周南 卷耳〉에 “卷耳를 뜯고 뜯어도 기운 광주리에도 차지 못해, 아! 내 님을 그리워하여 저 한길 가에 버려두노라.[采采卷耳 不盈頃筐 嗟我懷人 實彼周行]”라고 한 데서 온 말인데, 여기서는 大臣의 반열을 뜻한다.

02. 滁州謝上表* 知滁州에 제수되어 謝恩하여 올리는 表

* 景祐 2년(1035)에 歐陽脩의 妹夫 張龜正이 세상을 떠나자, 남편을 여윈 구양수의 누이가 일곱 살인 딸 하나를 데리고 구양수에게 와서 의탁하였다. 그 딸은 바로 장귀정의 전처 소생이었다. 張氏 딸이 장성한 뒤 구양수가 그녀를 자기의 먼 친족 조카딸 되는 사람인 歐陽晟에게 시집보냈다.

그런데 그 張氏가 후일 남편인 구양성의 男從인 陳諫과 사통하였다. 그러자 구양수의 政敵들이 이 일을 구실로 삼아 대대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리하여 權知開封府事 楊日嚴이 사건 처리를 맡은 사람을 시켜서 장씨의 供招 중에 구양수를 끌어넣어서 구양수가 장씨와 애매한 관계를 가졌고 장씨의 재산을 숙여서 차지했다고 誣陷하였다. 구양수가 이 일 때문에 滁州로 좌천되